교환학생 체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 이하린(2015152013)

HBK :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Kommunikationsdesign(Communication Design)

2018 - 2 , 2019 - 1

---

1. Braunschweig : 브라운슈바이크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는 하노버 옆의 작은 도시이다. 마을은 작지만 기차, 버스, 트램 등 교통이 편리했다. HBK에서는 학생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카드로는 마을 내 버스, 트램이 모두 무료였고 기차도 Niedersachsen 안에서의 이동은 무료여서 아주 편리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스위스에 교환학생 간 친구도 자주 방문했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사촌 언니에게도 자주 다녀왔다.

브라운슈바이크는 마을 내에서 걸어 다니기에도 아주 용이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한대 마련하기를 추천하는데, 나는 자전거를 보증금만 내고 빌려서 타고 다녔다. 마을에는 호수와 공원이 많아 친구들과 피크닉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날씨는 사계절이 한국과 비슷했지만,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한국과 달랐다. 창이 넓고 에어컨이 별로 없어서 다들 선풍기로 여름을 난다.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여름에 하루를 굉장히 길게 사용할 수 있었다. 겨울에는 라디에이터로 온도를 높이지만 그 주변만 따듯해져서 유학생들은 전기장판을 구비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온돌 장판이 그리웠다. 하지만 봄과 가을이 한국보다 더 길고 산뜻해서 여유롭고 한적하게 날씨를 즐기기에 적합했다.

독일의 물가는 외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팁 문화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왔으나, 생필품이 한국과 비교해 훨씬 저렴해서 장을 볼 때 재밌었다. 고기는 과자류보다 더 저렴하나 해산물은 비싸서 해산물보단 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다. 우리의 주식인 쌀 같은 경우에는 Milchreis라는 쌀 종류가 우리가 먹는 백미와 꽤나 비슷해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2. 시작

교환학생에 합격을 한 뒤엔 비자, 숙소, 보험 등등 HBK에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독일 교환학생들은 합격 발표가 늦게 나니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비자는 한국에서 1년 치를 받아 갔는데, 그 비자를 위한 서류도 준비할 것이 많았다. 대사관 업무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자를 시간 내에 받고 가려면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시간 예약을 하고 서류도 다 준비해 가야 한다.

집은 곧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못구해서 독일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했더니 거기서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 나가는 학생과 연결해 주었다. 기간도 딱 맞고 한국인이어서 얘기를 조금 해본 뒤 거기로 결정을 했다. 독일에 도착해서 임대인인 한국인 언니가 맞아주고 정보도 많이 알려줘서 독일 생활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의 두 번째 학기 때는 임대인 언니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집을 찾아야 했는데, https://www.immobilienscout24.de/ 이 사이트를 한달간 둘러보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다른 방을 찾아 이사해서 생활했다.

3. 학교

HBK의 규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비슷하다. 캠퍼스가 크진 않지만 필요한 시설은 모두 잘 갖춰져 있다. 수업은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되고 부분적으로 통역을 해주신다. 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말고 학생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모두 다 독일어로 되어있고 특히 수강신청 페이지는 번역 돌리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고생했다. (인터넷으로 독일어를 번역하려면 영어로 번역 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나는 International Office와 거기서 사귄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수강신청했다. HBK 측에서는 수강신청 시스템이 교환학생을 위해 너무 어려워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업 내의 분위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많이 달랐다. 동그랗게 모여서 얘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았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작업 스타일을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소통이 자유로우니 출석이 자유로웠다. 작업을 하느라 학교에 한 달씩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독일어 수업은 근처의 공대인 TU : Technical University Braunschweig에서 진행하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월등히 많아서 독일어 외에도 프랑스어,영어,스페인어 등등을 선택해 배울 수 있었

다. 언어별로 레벨별로 수업이 있어서 나와 비슷한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다.

도서관 건물
http://www.hbk-bs.de/index.php

4. 생활

독일에 처음에 도착해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셰어하우스에 한국인 남학생이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친구도 덕분에 많이 사귀고 다 같이 요리해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여기저기 놀러 가면서 타지 생활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학교나 독일어 수업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도 너무 좋았지만, 타지에선 추억과 문화를 공유한 친구들이 한둘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교환학생 이전엔 유럽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많은 곳을 다녀왔다. 유럽은 유럽 내에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에 아주 용이하다. 기차도 잘 되어있고,

비행기도 싸게 구입해서 여러 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교통 편을 찾기에는 omio라는 앱을 추천한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생활비를 졸라맨다면 알차게 교환학생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마켓들이다. 나는 브라운슈바이크,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라하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녀왔는데, 도장 깨기하는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바쁘고 따듯하게 보낼 수 있었다.

유럽의 생활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사람들은 4, 5시면 퇴근하니 온갖 관공서, 학교 행정실, 은행 등의 업무는 오전에 약속을 미리 잡고 방문해야 하고, 중요 서류가 메일보다는 종이로 배송되는 시스템이어서 불편한 점도 많았다. 일요일엔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토요일에 무조건 장을 봐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 생활을 하면서 수업 후에 친구들과 호수 근처에서 누워서 얘기를 하거나,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는 생활은 서울과 다른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줬다. 한국이라는 나의 세이프존을 벗어나고 나니 아시안 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있었다. 외국인 친구들과는 한국 음식을 해먹으며 박수받거나 서로 문화가 다르니 화법이 달라 웃긴 상황도 많아 즐거웠다. 독일 생활을 하며 맥주와 감자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1년간의 독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다.

시내 광장